

## 원격수업에서 배운 첫 우리 말

기다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 학부모 김성희

※2020년 4월에 갓입학한 학생어머니의 글입니다. 앞으로 이 학생은 6년간 멀리 高槻에서 왕복 3시간의 통학길을 다니게 됩니다.

「ウリマルを覚えたい!」という息子の一言で決めたウリハッキョの入学。

新しい制服やランドセルを身にまとい、はりきって登校して二日…コロナウィルス感染防止の為、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ました。

楽しみにしていたハッキョに登校できなくなり少し寂しそうな息子でしたが、ハッキョソンセンニムがすぐに家庭訪問に来てくださり課題を届けてくださって息子はとても喜んでいて、親としてもとてもありがたく安心しました。

共働きで学童もなく、両親が交代で仕事に出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まだウリマルも勉強の仕方も知らない息子にじっくり学習させてあげることができないと不安に思いました。

学童に預けている保育園からの友だちも、学童の自習時間があるけれど、勉強の仕方を知らないので自習にならないと悩んでいました。

ですがハッキョではすぐに対応してくださり、オンライン授業がスタートしました。

授業の内容はウリマルをまだ知らない息子にも分かりやすく、とても楽しんでいきます。「次に動画見る!」と意欲的に学習する姿を見て、ウリハッキョに入学させて本当によかったと心から思っています。

課題でもらった自由画、「何描く?」と聞くと、「トンムたち!桜!」と答えました。入学式の印象が強かったのだと思います。

「これ何の日?」と聞くと「イパッシク ナリエヨ!」と遠隔授業で習ったウリマルで答えてくれました。

ソンセンニムやトンムたちと楽しくあそび、学べる日が一刻も早く戻ってく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 [우리 말 번역]

《우리 말을 배우고싶다!》는 아들의 한마디로 결정한 우리 학교에로의 입학.

새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만면에 웃음을 띄워 내디딘 첫 등교. 그러나 다음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등교를 못해 서운함을 금할수 없는 아들이었으나 학교 선생님들이 곧 가정방문을 와주시고 과제도 내여주셨으니 아들은 아주 기뻐했으며 부모마음도 참말 고맙고 안심되었습니다.

맞벌이가정으로 아이를 따로 맡길 곳이 없어 부부가 교체로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아직은 우리 말도 학습방법도 전혀 모르는 아들에게 어떻게 공부시킬가 불안했습니다.

일본보육소시기의 동무들의 부모도 학습방법을 몰라서 아주 힘들다고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인차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직 우리 말을 모르는 우리 아들에게도 알기 쉽게, 아주 친절하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더 공부할래!》하면서 의욕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서 정말 좋았다고 가슴깊이 느끼군 합니다.

도공과제로 제시된 그림그리기, 무엇을 그리느냐고 물으니 《동무들! 벚꽃!》이라 합니다. 입학식의 인상이 강했던가 봅니다.

《이 그림은 무슨 날?》이라고 물으니 《입학식날이예요!》라고 《온라인수업》에서 배운 우리 말로 대답해주었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과 즐겁게 뛰놀며 배울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되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